'지방분권 개헌' 의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의원 전원에 질의서 공개 발송 찬·반 의사, 투표 시기 등 질문…22일까지 회신 요구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민·관·언의 움직 임이 중앙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일부 정치인들 을 압박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된 질의서를 공개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 대부분의 정치권이 내년 을 개헌의 최적 시기로 보는 상황에서 지 방분권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내 지 못할 경우 지방분권 개헌이 요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민·관·언의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한 정치권 압박 행보는 향 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 보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중심 으로 한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나타내는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분석된다.

지방분권시민단체와 지역언론단체는 물론 지방자치 3단체 등 범 지방분권개헌 세력이 총 망라돼 있는 '지방분권개헌국 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4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 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민회의는 질의서에서 ▲지방분권 개 헌에 대한 찬·반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추어 실시할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할지 ▲지방분권개 헌 국회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구체적 내용 으로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조직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역재정 격차의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동 의하는 항목에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개헌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단일안 마련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는 22일 오전까지 회신해줄 것을 부탁했다.

앞서 국민회의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 서 여야 후보 5명 모두와 내년 6월 지방선 거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겠 다는 내용의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제 1야당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반대하 고 나서면서 국민회의는 지난 11일 대구시 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

개헌에 딴죽을 걸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국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홍 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국민회의는 또 전국 각 지역별로 지방분 권 개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 간 담회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간담회 등 의 활동을 해왔다.

지난 2월8일 출범한 국민회의에는 ▲지 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 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 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 인클럽 ▲전국이통장연합회 ▲한국주민 자치중앙회 등 모두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개헌·지방분권 TF 꾸린다

의총서 재정 불균형 문제 등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헌 문제와 관 련, 경제민주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 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 다. 또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 하면 TF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 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제 대변인은 우선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 다"면서 "그러나 여러 쟁점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제안했다"고 말

이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재정자 립에 따른 재정 불균형 문제도 집중 논 의됐다.

제 대변인은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됐고, 전반적으로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 서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 수준이 대체로 높았다"면서 "재정 불균 형과 관련해서 추가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지방분권 TF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에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문제,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 양원제 도입이나 자치사법권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로 열린 민주당 개헌 의총도 50여명의 의원만 참석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로 인 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접점 못찾은 '근로시간 단축'

당정·한국노총 비공개 협의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등 3당 합의안에 노동계 반발 與 내부서도 "서두른다"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의 해법 마련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 3 당의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핵심 쟁점에 동의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면 서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비 공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당 간사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 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강병원·이용 득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할 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는 반발 목소 리가 나왔고, 결국 합의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와 한국 노총 지도부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 안이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점 등에서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는 3당 합의안은



당정-한국노총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맨 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전 국회 원 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법원 판 결을 보고 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 수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 자들과 만나 "개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연내 처리 주장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 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반발에도 여당 지도부는 절충안

을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을 완 료하겠다는 입장이나 노동계, 재계 등 각 계 의견이 너무 달라 논의를 쉽사리 진행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일각 에서는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임에 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청이 지나치 게 입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내년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굳이 여야 합의안으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를 설득하고 싶어 도 지금은 설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69.5%

리얼미터 1507명 조사

민주 53%·국민의당 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 뢰로 11~13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 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 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 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주보다 1.3%

포인트 내린 69.5%로 집계됐다. 국정수 행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71.2%, 지난 주 70.8%를 기록한 데 이어 3주 연속 완 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며 53.3%로 1위를 달렸다. 자유한국당은 19.0%, 국민의당 6.1%, 바른정당 4.7%, 정의당 3.5%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 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법안 발의···의장에 권한 부여 독립성·전문성 강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 회공무원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단체장의 의 지에 따라 공무원의 집행기관과 의회 순 환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 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인 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의회공무원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 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 지방 의회 공무원이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 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활발히 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_{
m assion~[gg],~Vision~[T],~Truth~[진리] 로 충만한$

5

5 15

10

25

8

15

10

20

10

20

6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모 집 학 과

신학과(M.Div.)

신학과(Ph.D.)

목회학과(D.Min.)

유아교육학과(D.Ed.) 사회복지학과(D.S.W.)

상담심리치료학과(D.C.S.)

코칭심리학과(D.Psy.)

통합예술치료학과(D.C.S.)

통합예술치료학과(D.C.S.)

신학과(Th.M.)

유아교육학과(M.Ed.)

상담심리치료학과(M.A.)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사회복지학과(M.S.W.)

평생교육학과(M.Ed.)

한국어교육학과(M.Ed.)

음악학과(M.A.)

실용음악학과(M.A.)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2017. 12. 15(금) 오후 2:30

2017. 12. 15(금) 오전 9:40 2017. 12. 15(금) 오전 9:40

2017. 12. 16(토)

오후 2:40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 ※신학과는 **근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전 형 일: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계열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01 🗆	신 학 과	0	0	
인문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0		
사범	유아교육과	0	0	0
에느	음 악 학 과	0		
예능	실용음악학과	0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째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대학원 605-1115

대학원

② 전 형 일

대 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석사

석사

